

## 제약/바이오섹터에 대한 시선

analyst 하태기

### 바이오주는 저점대비 1단계 회복, 글로벌 3상능력에 대한 불신에 추가 상승모멘텀은 제한적

#### 선발 바이오주의 변동성 확대, 제한된 1차 추가회복 완성

제약/바이오주가 장기간의 주가 조정을 거치고, 8월~10월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. 그러나 일부 바이오기업 주가에서 투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, 공매도도 증가하여 큰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다.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세와 공매도가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. 1차 바이오주의 회복이 완성되는 모습이다.

#### 2020년에도 바이오기업 신약개발활동 활발할 전망 → 기업가치 증가

최근 비록 글로벌 임상 3상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실망을 안겨줬지만 제약 바이오기업에서 대규모 기술수출도 이어지고 있다. 한미약품을 비롯한 대형제약사와 부광약품을 비롯한 중소형 제약사의 신약개발활동이 지속될 전망이다. 제네릭의약품에 기대어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간파한 중대형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. 특히 태생적으로 신약개발이 생존전략인 바이오기업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.

지금부터 2020년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되는 시기이다. 제약/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2020년에도 변함없이 투자와 기술개발, 임상이 진행 될 것이다. **신약개발에 대한 성공여부와는 별도로 국내 바이오 기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될 것이며, 해당 기업의 가치도 증가할 것이다.**

#### 낙폭 컸던 선발 바이오종목들의 1단계 회복, 추가 강세에는 신뢰 있는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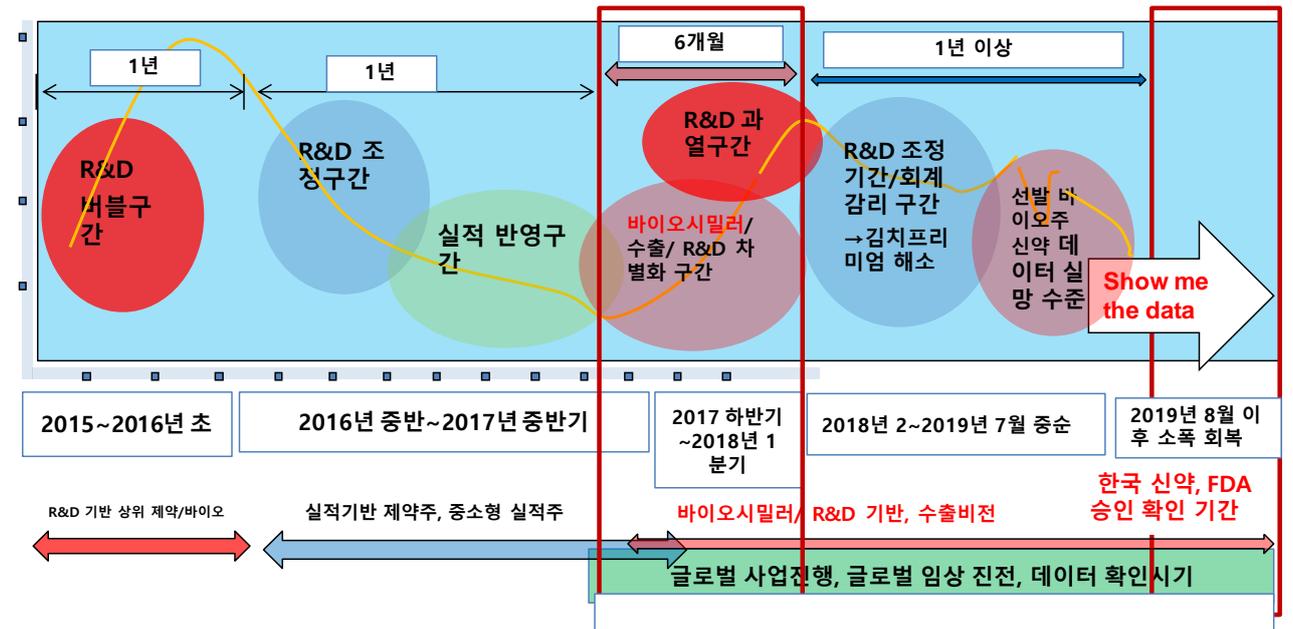
2019년에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오투자에서 큰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, 바이오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본다. 물론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투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없을 수 없겠지만, 그 대신 바이오기업에 옥석가리기 투자패턴이 과거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. 즉 투자에 신중해 진 모습이다.

이제 계약금이 큰 대규모 기술수출,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임상데이터발표, 상업성이 큰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과 같은 검증된 데이터나 계약이 발표될 때에야 의미 있는 주가상승이 가능할 것이다. 이러한 계약이나 임상데이터발표가 향후 한국 제약 바이오기업에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. 따라서 **바이오기업에 대한 주가전망은 과거보다는 툭다운 되었지만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. 지식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여건상 길게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.**

#### 지금은 실적시즌, 실적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

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실적시즌이다. 제약 바이오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, 그리고 배당 높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**3분기 실적 대비 관심 종목은 종근당, 보령제약, 동국제약 등이 될 것이며, 배당 관심종목은 휴온스와 휴메딕스, JW생명과학** 등이다.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금년 11월에 SK의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Cenobamate에 대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도 있다.

[표 1] 제약/바이오주 국면별 주가 트렌드 시나리오 → 2019년 4분기 주가회복기 진입 가능성



자료: 상상인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하태기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	Overweight(비중확대)			
	업종 비중 기준	Neutral (중립)			
	투자등급 3 단계	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	Buy (매수)	+15% 이상	52.4%	
	투자등급 4 단계	Hold (보유)	-15% ~ +15%	1.7%	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
		Sell (매도)	-15% 이하 기대	0.0%	
		Not Rated(투자의견없음)	등급보류	45.8%	
	합계			100.0%	